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IMF의 성장을 하향에도, 협상 기대, 저가 매력 등으로 2%대 반등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2일(화) 미국 증시는 IMF의 전세계 성장을 하향, M7 실적 경계심리에도, 전일 낙폭과대 인식 속 스캇 베센트 장관의 협상 관련 낙관적 발언 등에 힘입어 2%대 반등(다우 +2.7%, S&P500 +2.5%, 나스닥 +2.7%).

현 시점은 관세로 인한 수요 및 성장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전일 IMF의 4월 수정경제 전망에서 전세계 성장을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점은 상기 불확실성을 확산시킬 법 했음. 가령, 25년 전세계 성장을 전망치를 기준 3.3%에서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를 반영해 2.8%로 큰 폭 하향 조정한 상황. 국가 별로는 미국(2.8% → 1.8%), 유로존(1.0% → 0.8%), 한국(2.0% → 1.0%), 중국(5.0% → 4.6%) 등 대부분 하향 조정. 이중 미국의 성장을 하향 조정폭이 주요국 국가보다 컸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

다만, IMF에서 지적했듯이, 미국과 여타 국가간 협상을 통한 상호관세 유예 지속(or 철회), 보편관세 완화 가능성 등이 경기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더 나아가, IMF 측에서도 전세계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는 레벨은 2.0%로 제시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이번 전세계 성장을 하향조정(3.3% → 2.8%)이 침체 임박 신호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 또 전일 베센트 장관이 미국과 중국의 양방 고율관세는 지속 불가능하며, 가까운 미래에 관세가 완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점도 증시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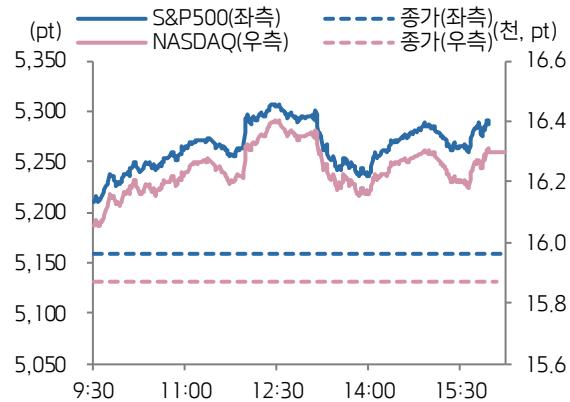
결국 “경기 침체 기정 사실화 → 미국 증시의 지난 4월 초 기록했던 전저점 하향 이탈”이라는 워스트 시나리오에 현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 전일 미국 증시가 IMF 성장 전망 하향이라는 악재에도 반등에 성공한 것도, 침체 불안은 과도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대목. 실적시즌과 맞물린 관세 발 침체 노이즈에 주식시장은 빈번하게 노출될 수는 있겠지만, 해당 노이즈에 매도세로 대응하는 전략은 지양하는 것이 적절.

전일 국내 증시는 M7 급락, 연준 독립성 우려 등 미국발 악재로 하락 출발했으나, 장중 미 선물 시장 반등, 국내 밸류에이션 매력 등으로 장중 낙폭을 회복하며 보합권에서 마감(코스피 -0.1%, 코스닥 +0.1%).

금일에는 IMF의 한국(2.0% → 1.0%) 등 주요국 경제 전망 하향 부담에도, 미국 증시 2%대 반등 효과 등에 힘입어 상승 출발할 전망. 업종 측면에서는 테슬라(+4.6%)가 자동차, ESS 등 전사 부문에 걸쳐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으며, 관세 불확실성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은 점은 부담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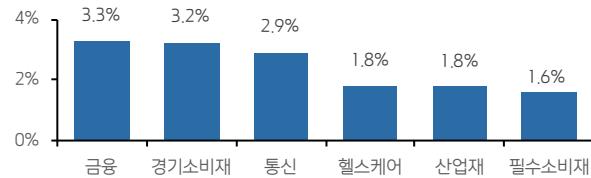
여기서 장 마감 후 트럼프가 “파월 의장 해임 계획은 없으며, 중국에게 강경하지 않을 것”이고 관세 합의에 낙관적”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하루 만에 말을 재차 바꾸는 모순적인 그의 행보에 시장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기는 함. 그렇지만 현재 시간외에서 테슬라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애플 등 M7주들도 2~3%대 일제히 반등하고 있다는 점은 미중 강대강 대치 국면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 데 베팅하고 있음을 시사. 따라서, 이 같은 관세 전쟁 완화 소식은 금일 국내 증시에서도 이차전지, 반도체, IT가전 등 관세 피해주들에게 단기 주가 회복 모멘텀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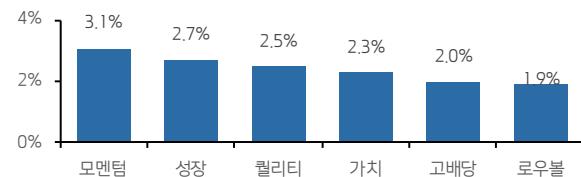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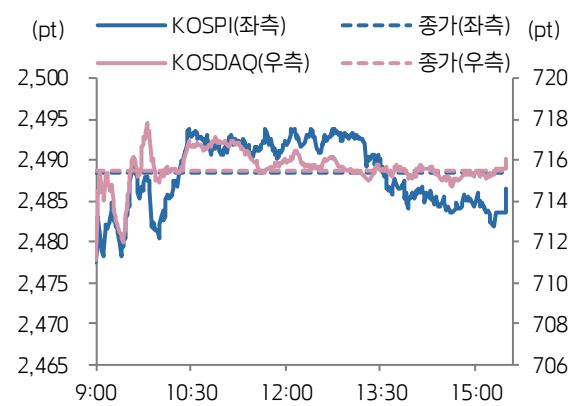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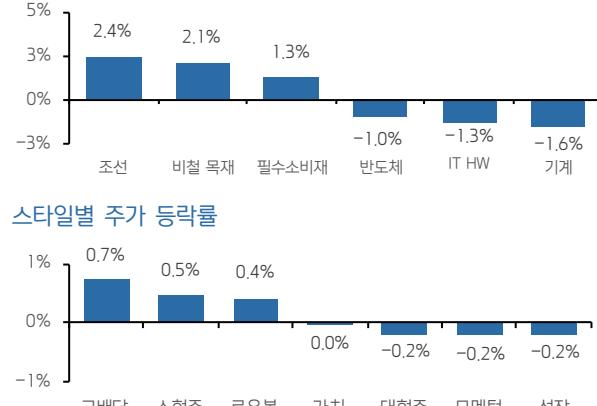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199.74	+3.41%	-20.15%	GM	45.16	+1.73%	-15.01%
마이크로소프트	366.82	+2.14%	-12.8%	일라이릴리	827.54	+1.16%	+7.38%
알파벳	151.47	+2.57%	-19.89%	월마트	94.85	+2.64%	+5.27%
메타	500.28	+3.22%	-14.48%	JP모건	235.59	+2.88%	-0.6%
아마존	173.18	+3.5%	-21.06%	엑손모빌	108.30	+2.8%	+1.58%
테슬라	237.97	+4.6%	-41.07%	세브론	137.30	+2.67%	-4.15%
엔비디아	98.89	+2.04%	-26.35%	제너럴일렉트릭	94.85	+2.6%	+5.3%
브로드컴	169.58	+2.03%	-26.63%	캐터필러	291.17	+2.26%	-19.05%
AMD	86.26	+0.82%	-28.59%	보잉	162.52	+2%	-8.18%
마이크론	70.21	+5.2%	-16.47%	넥스트에라	66.64	+3%	-6.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486.64	-0.07%	+3.63%	USD/KRW	1,424.00	+0.18%	-3.28%
코스피200	328.61	-0.21%	+3.4%	달러 지수	99.36	+1.1%	-8.41%
코스닥	716.12	+0.09%	+5.59%	EUR/USD	1.14	-0.82%	+10.31%
코스닥150	1,171.16	+0.21%	+3.66%	USD/CNH	7.31	+0.26%	-0.35%
S&P500	5,287.76	+2.51%	-10.1%	USD/JPY	141.57	+0.5%	-9.94%
NASDAQ	16,300.42	+2.71%	-15.59%	채권시장		가격	DTD(bp)
다우	39,186.98	+2.66%	-7.89%	국고채 3년	2,325	+0.5bp	-27bp
VIX	30.57	-9.61%	+76.2%	국고채 10년	2,620	+2.5bp	-25.1bp
러셀2000	1,890.28	+2.71%	-15.24%	미국 국채 2년	3,819	+5.7bp	-42.3bp
필라. 반도체	3,832.05	+2.14%	-23.05%	미국 국채 10년	4,401	-1bp	-16.8bp
다우 운송	13,367.99	+1.53%	-15.9%	미국 국채 30년	4,878	-2.5bp	+9.6bp
상해증합	3,299.76	+0.25%	-1.55%	독일 국채 10년	2,443	-2.9bp	+7.6bp
항셍 H	7,950.79	+0.68%	+9.07%	원자재 시장		가격	DTD(%)
인도 SENSEX	79,595.59	+0.24%	+1.86%	WTI	63.67	+2.02%	-9.26%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67.44	+1.78%	-9.65%
Eurostoxx50	4,961.45	+0.53%	+1.34%	금	3,419.40	-0.17%	+27.02%
MSCI 전세계 지수	796.26	+1.68%	-5.36%	은	32.91	+1.18%	+12.53%
MSCI DM 지수	3,487.99	+1.86%	-5.93%	구리	487.80	+3.16%	+21.15%
MSCI EM 지수	1,073.79	+0.17%	-0.16%	BDI	1,261.00	+1.61%	+26.48%
MSCI 한국 ETF	54.81	+0.77%	+7.7%	옥수수	483.25	-1.38%	+3.09%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50.25	-0.36%	-3.38%
비트코인	91,177.46	+4.38%	-2.71%	대두	1,046.00	+0.43%	+1.09%
이더리움	1,696.14	+7.53%	-49.32%	커피	372.75	+2.25%	+20.8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4월 22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다.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